제11강 내세에 대한 이해 I: 윤리학적 쟁점(2) - 기독교를 중심으로

(1교시)

※ 학습목표

사후 세계를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 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, 그와 함께 제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자.

▲ 사후 세계 논의의 철학적 난점

-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 할 경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. 종교상징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. 즉, 사실을 가리키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생각해야 한다.

(1)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

- 이승의 언어와 논리로 저승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?

=> 묘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이고, 비유이다.
그렇지 않다면 저승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다.
예> 저승의 지옥 불

(2) 사후 세계와 사후 존재자의 존재론적 성격

- 공간적 세계라면 사후 존재자가 물리적 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발생
- 공간적 세계 아니라면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신체 기관을 갖지 않는 사후 생존 존재는 그 안에서 지각하거나 행위 할 수 없지 않은가?

=> 상상이라는 내적 활동만 존재, 기존의 경험 내용 안에서 머무를 뿐
=> 사후 세계는 사후 생존 존재가 경험하는 영상 적 세계 (마치 꿈의 세계처럼)

- 비공간적 저승에서는 사후 존재자의 신체도, 그것을 둘러싼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.

: 지속적인 영상의 다발이 영상-신체 구성, 유사 감각 구성
=>실제로는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런 상황에 있다는 영상은 가질 수 있다.

- 저승은 소원 성취의 세계일 수도 있다

: 무엇인가에 대한 바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영상이 따라 나온다.

문제 ① 다른 사후 존재자의 존재는? : 사후 세계는 유아론적 세계
·다른 사후 존재자들에 대한 영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지각은 가질 수 없다
=> 공유된 사후 세계가 가능한가?

문제 ② 비공간적 저승의 생존자가 우리의 세계에 행위를 일으켜 영향을 줄 수 있는가?
·그들이 우리 세계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없다.
=> 사후 세계는 종교 상징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.

www.artnstudy.com

▲ 사후 세계라는 종교 상징의 기능

(1) 윤리적 기능
- 이승에서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처벌
* 예수 : 지옥에 대해 자주 언급
- 지옥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,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.
- '꺼지지 않는 불'이 타고 있는 곳, '영원한 불'이 있는 곳, '불과 구더기'가 있는 곳
=> 도덕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맥락에서 언급
- 영혼만이 지옥에 가는 것인지, 육체만이 가는 곳인지 불분명
- 영혼 개념 : 육체와 분리된 개념이 아닌 자아 그 자체,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킴
=> 지옥의 형벌이나 지옥의 실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후대의 일

(2) 위로의 기능
- 죽음의 허무함에 대한 보상과 위로

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▲ '사후 세계' 상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: 기독교의 경우

* 예수와 소크라테스 (히브리와 그리스)
- 히브리 : 영과 육신은 하나이며 자아라는 일원론적 관점.
  그리스 : 영과 육신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체라는 이원론적 관점.
  내세에 대한 상징은 그리스적 관점에 가깝다.
- 소크라테스 : 죽음이 가까워 오자 평온 유지
 => 죽음은 육신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. 육체는 영혼의 감옥.
- 예수 :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경험
 => 죽음은 가장 큰 파괴, 신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여 죽음이 파괴한 것을 재생할 때 극복 가능
 => 기독교 신앙은 신체 부활에 대한 믿음 : 예수의 부활로 확증

(1) 내세로서의 천국과 지옥 : 히브리 전통의 그리스화
 - 영혼과 육체의 분리, 영혼 불멸 사상 : 그리스 사상의 영향

1) 사도신경(8세기)
 - "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" "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" : 육체의 부활, 최후의 심판 고백
 - 윤리적 생활 여부 <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= 교회에 대한 충성

2) 중세 기독교
 - 엄격한 영, 육의 분리
 - 사후 세계에 대한 세밀한 분류
 - 지옥, 천국, 연옥(죄인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)
 - 세례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거쳐 가는 곳, 구약의 족장과 경건한 자들이 머무는 곳, 예수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는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

3) 종교 개혁 후
 - 종말론을 개인화 : 저승의 문제로 부각
 - 그리스적 영혼론에 기반
 - 죽은 후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경험
 - 최후 심판 날 육체와 다시 만나 부활

4) 근대 계몽주의
 - 영혼과 사후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론적 접근 비판
 - 칸트 : 영혼 불멸은 '요청'이다.
 - 포이에르 바흐 : 천국은 인간 염원의 투영

www.artnstudy.com

- 마르크스 : 내세 상징은 민중으로 하여금 고통을 위로 받고 망각하게 하기 위한 환상

5) 현대 자유주의
- 저승의 문제는 이승의 문제로 전환시켜야
- 천당과 지옥 : 객관적 장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
-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.
- 좋은 일을 하고,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.

www.artnstudy.com